

[보잉] Wisk Aero 등 3 개 자회사 아처에비에이션에 매각, 지분 20% 확보 - 적자 신사업 정리하고 본업 현금흐름 회복에 집중



26.08.12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핵심 요약

- Wisk Aero 등 3 개 사업부, 아처에비에이션에 매각
- 대가는 현금 아닌 아처 지분 20% 취득
- 적자 신사업 정리, 본업 현금흐름 집중 신호

보잉이 전기항공기 자회사 Wisk Aero 를 포함한 3 개 사업부를 아처에비에이션에 넘기고 그 대가로 시가총액 50 억 달러 규모인 아처 지분 20%를 받기로 했다. JP 모건이 보잉 측, 몰레리스가 아처 측 자문을 맡았다. 대상 사업에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이른바 '플라잉택시') 개발 부문과 국방용 드론 사업이 포함된다.

이 매각은 실적보다 자원 배분의 문제로 읽는 게 맞다. 보잉은 최근 분기 매출과 인도량, 수주잔고에서 양적 회복을 확인했지만 Core EPS 는 여전히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고 BCA(민항기 부문), BDS(국방·우주 부문) 모두 영업손실 상태다. 승객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하고 자금 투입만 계속되는 eVTOL 사업을 지분으로 맞바꾼 결정은, 우리가 그동안 지목해온 BDS 고정가 프로그램발 반복 손실 리스크와는 결이 다르지만 같은 방향의 처방이다. 손실을 내는 비핵심 자산을 걷어내 본업인 737·777X 생산 정상화와 현금흐름 개선에 자원을 모으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로이터 칼럼니스트는 이번 거래를 두고 아직 승객이 거의 없는 적자 산업에서 발을 빼는 조치로, 플라잉택시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는 외부 논평이며 보잉의 재무 수치로 직접 검증되는 부분은 아니다.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다. 매각 대금이 현금이 아니라 지분이라 단기 현금흐름 개선 효과는 크지 않고, FY26 FCF 가이드نس 달성 여부는 여전히 BCA 생산을 확대와 인도 속도에 달려 있다. 주가에는 중립적이거나 완만한 긍정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비핵심 손실 사업 정리라는 방향성 자체는 시장이 선호할 부분이나 자금 회수가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되돌림 효과도 있다. 앞으로는 이 지분의 회계 처리 방식과 BDS 잔여 포트폴리오에서 드론 사업 이탈이 매출·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무 요약 (I/B/E/S 컨센서스)

항목	FY Dec-24	FY Dec-25	FY Dec-26 (E)	FY Dec-27 (E)	FY Dec-28 (E)
매출 (Revenue)	66.52	89.46	98.21	112.81	123.44
↳ 증가율	-14.50%	34.50%	9.77%	14.87%	9.42%
매출총이익	-1.99	4.29	12.45	17.97	22.80
↳ 마진	-2.99%	4.79%	12.68%	15.93%	18.47%
EBITDA	-8.87	6.23	4.42	8.63	12.53
↳ 마진	-13.34%	6.97%	4.50%	7.65%	10.15%
영업이익 (EBIT)	-10.71	4.28	2.13	6.16	10.02
↳ 마진	-16.10%	4.79%	2.17%	5.46%	8.12%
순이익	-13.18	-4.99	-0.64	3.19	6.51
↳ 마진	-19.82%	-5.57%	-0.65%	2.83%	5.27%
EPS	-20.38	-6.54	-0.95	3.85	7.91
↳ 증가율	250.77%	-67.91%	-85.43%	-504.07%	105.30%
잉여현금흐름 (FCF)	-14.31	-1.88	2.45	6.14	9.88
P/E	—	87.6x	—	60.6x	29.5x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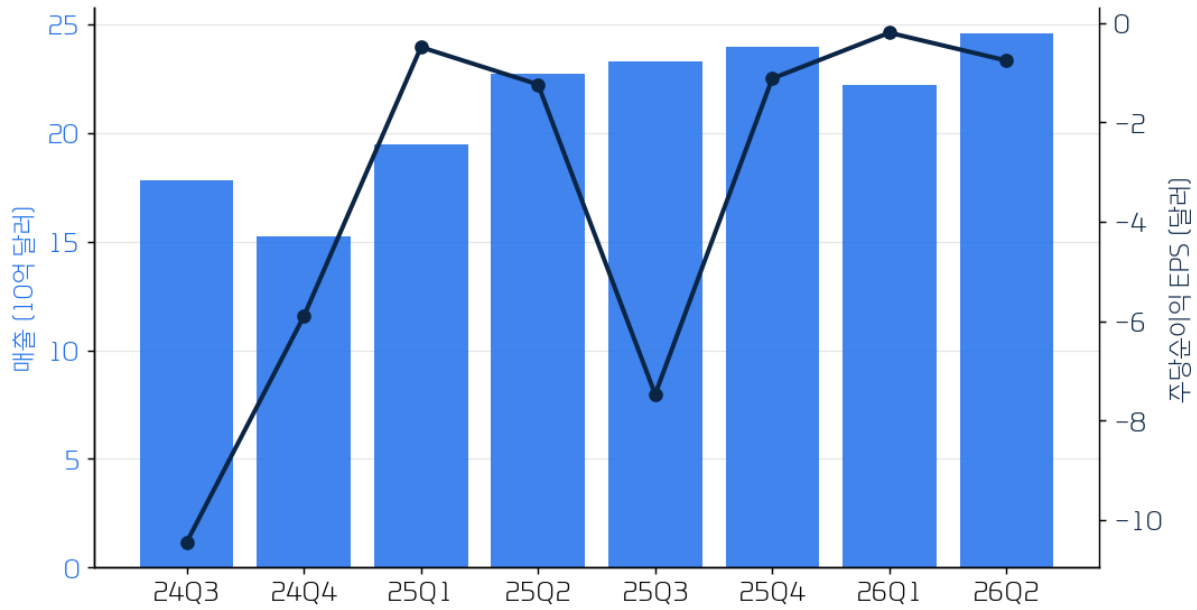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YoY, 단위는 십억 USD

참고 차트

BA 주가·12개월 선행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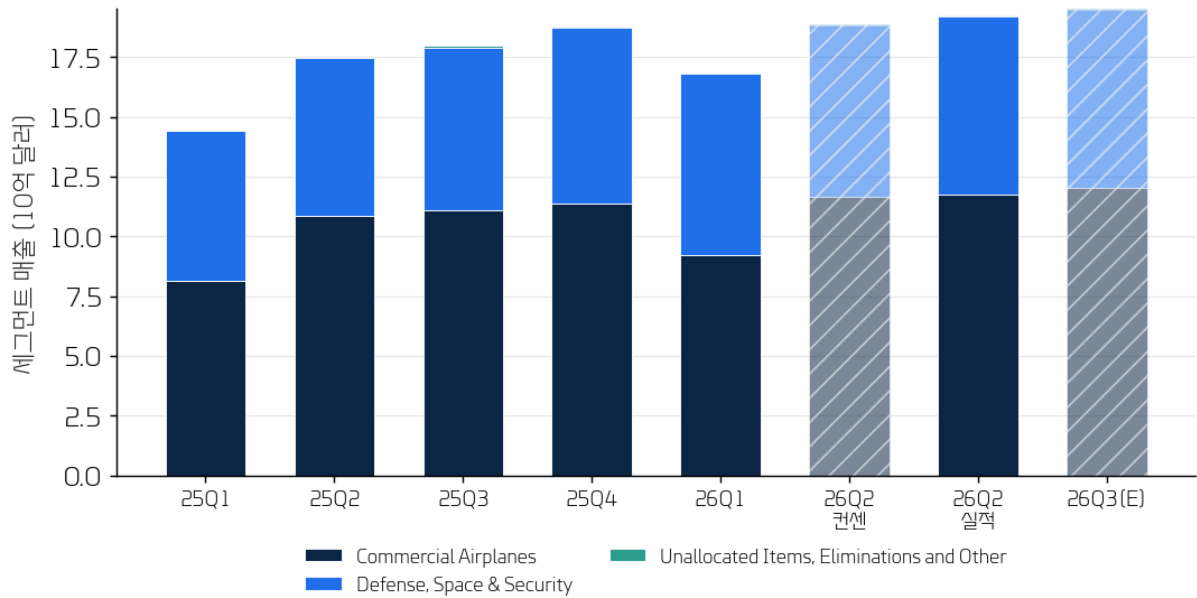


BA 분기 매출·주당순이익(EPS) 과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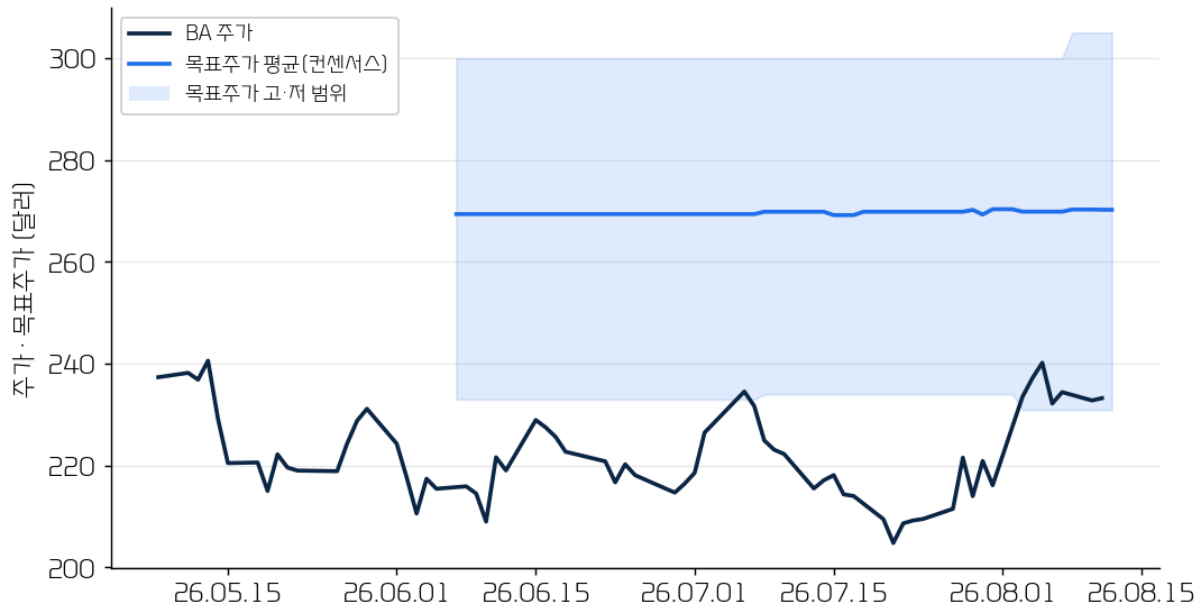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세그먼트 매출 구성(사업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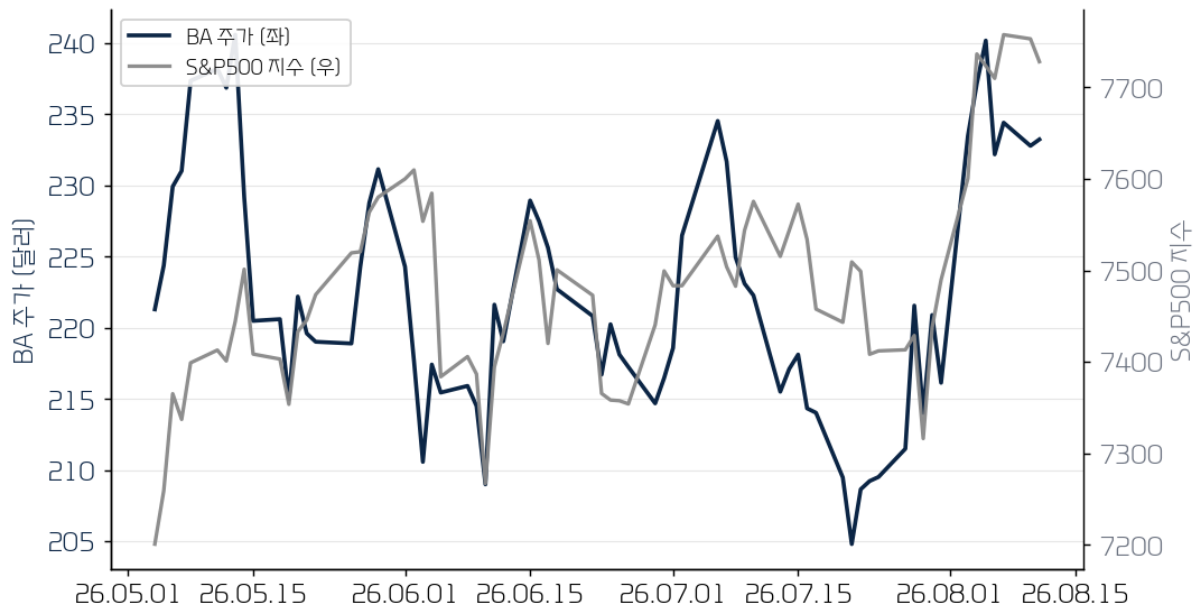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BA 주가 vs S&P500 (최근 90 일)



자료: 각사,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